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보영이네 시골밥상

달서구 성지로14인길 14(용산동 455-5)
예약 전화 ☎ 053-252-6633

‘집밥, 집맛’ 현지인 맛집



외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외부에 해결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음식 메뉴를 고르는 것도 일이지만 자신의 입에 맞는 가게 찾는 것도 일이 된다. 자신의 입에 맞는 곳을 찾아서 한 그릇 기분 좋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집밥, 집맛이 그리울 때는 인근 분들이 좋아하는 일명 노포 맛집이 필요한데 바로 용산동 ‘보영이네 시골밥상’이다. 용산동 성서용산시장 뒤편 주택가 내 공용주차장 앞에 있어, 시장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주변이 주택가라서 주차할 곳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식사 메뉴는 한정식, 추어탕, 김치찌개, 차돌박이된장, 칼국수, 잔치국수, 아귀찜 등이 있고 안주 메뉴는 낙지볶음, 알탕, 돼지껍데기, 오뎅탕, 두부김치, 파전, 부추전, 돼지두루치기 등이 있으며, 각종 음료가 있다.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잔치국수, 어떤 반찬이 나올까 궁금한 한정

식, 기름기가 살짝 있는 차돌박이된장 등 여러 가지 선택하고 싶은 음식들은 많이 있다.

처음 가는 곳의 음식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입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해 김치찌개를 선택하고 가게 내부를 잠시나마 살펴봤다.

믿음이 가는 오픈된 주방에 사장님의 직접 음식을 하는 것 같았으며, 먼저 나온 밀반찬(멸치볶음, 멸치조림, 무생채, 시금치무침, 부추오이무침, 김치 등)은 맛이 좋았다. 밀반찬으로 밥 한 공기 해결할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듯하다.

주문한 김치찌개는 사각형으로 자른 돼지고기를 적당히 이은 김치와 볶은 후에 육수를 넣어

만든 것 같다. 김치찌개가 다른 곳은 각종 재료를 넣어서 그냥 끓이는데 이곳은 1차로 볶은 후에 끓여서 구운 돼지고기 맛이 김치랑 함께 잘 어울렸다.

개인적으로는 김치랑 돼지고기를 볶은 후 찌개를 만드는 음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맛이 너무 좋았다. 식욕이 더 터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맛은 확인됐으니, 이제는 지인들과 함께 다른 메뉴들을 맛볼 시간이다. 한정식과 추어탕이 먼저 입에 맞는지 확인하고, 다른 메뉴들이 많이 있으니 용산동 올 일 있으면 한 번씩 들려야겠다. 한참 사춘기로 식욕이 왕성한 아들과도 함께 와봐야겠다.

정일남 객원기자



팬클럽 영웅시대 대구별빛스터디방

계명대 동산병원 취약계층환자 의료비 지원금 700만 원 기부

가수 임영웅 팬클럽인 ‘영웅시대(대구별빛스터디방)’가 가수 임영웅의 생일인 6월 16일을 맞아 지난 10일(월) 취약계층인 소아암 및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류영욱)에 700만 원을 기부했다.

<자료제공: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달서구 청청(靑聽)기획단 모집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6월 28일(금)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달서구 청청(靑聽)기획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청청기획단 모집 규모는 20명 내외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5개 분과(참여·권리, 일자리, 문화, 생활·복지, 홍보·소통)를 중심으로 달서구 청년정책 5대 분야에 맞는 청년사업 정책 발굴·제안, 청년사업 참여·홍보 및 타 청년단체와의 교류, 청년축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청청기획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달서구 청년센터 홈페이지(www.d-yout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지역 연합 ‘농촌 일손 돋기’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수) 일손이 부족한 달성군 구지면의 양파, 마늘 농기를 돋기 위한 지역연합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손 돋기 활동은 달성군의 농촌 인력 감소화 및 고령화로 인해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제때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대구시자원봉사센터와 중구, 남구, 수성구, 동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 200여 명이 참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매년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 와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전했다. 최준업 객원기자



달성군새마을회, 이웃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돋기

달성군새마을회(회장 정연욱)는 지난 10일(월) 달성군 논공읍에 소재한 양파 농가를 돋기 위해 정연욱 회장을 포함한 달성군 새마을지도자 70여 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또한 정연욱 회장은 현장에서 수확한 양파 1,000kg을 구입해 양파 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했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주)부성TFC, 국가보훈대상자 후원 전달

(주)부성티에프씨(대표 조상형)은 지난달 24일(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등산용 가방 및 직원 성금을 대구지방보훈청(청장 박현숙)에 전달했다.



MG새마을금고 달성군협의회, 성금 기탁

MG새마을금고 달성군협의회(회장 홍진웅)는 지난 4일(화)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농촌 일손 돋기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회장 노미영)는 지난 7일(금) 회원 40여 명은 농번기를 맞이해 구지면 수리리에 소재한 양파 농가를 방문해 수확을 돋는 등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 농가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달성군 가창면-고령군 우곡면, 상호 기부

달성군 가창면(면장 박은주)과 경북 고령군 우곡면(면장 정원철)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7일(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논공읍 새마을회, 반찬 나눔 봉사

논공읍 새마을협의회·부녀회(협의회장 제갈태규, 부녀회장 이홍임)는 지난 7일(금) 논공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사랑의 맛바구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새마을회원 20여 명은 손수 만든 반찬을 관내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전달했다.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신기동 물회나라

달서구 와룡로9길 93(본동 700)
예약전화 ☎ 053-521-4350

해산물 가득한 '물회' 한 그릇 생각날 때...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로 들어서면서 시원한 음식이 생각이 난다. 보통은 냉면을 한 번씩 먹기는 하지만 딱히 여름 음식이 생각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문득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물회 한 그릇 하고 싶다는 생각에 장소를 물색하다가 본동 '신기동 물회나라'를 선택했다.

감천네거리에서 월성센트럴(구. 월성주공4단지) 방향 50m 정도 가면 선산곱창이 있고 그 가게 안쪽으로 50m 정도 가면 '신기동 물회나라'가 나온다. 가게 앞 주차는 3~4대 정도밖에 안되고 특별히 마련된 주차장은 찾지 못했다. 주차는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가게 내부는 넓고 테이블도 많아서 웨이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대개 맛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물회는 생각하지 못했다.

가게 앞 각종 수족관에는 여러 가지 해산물 즐비하게 있었고 메뉴판을 보니 활어회로도 유명하다. 이곳의 메뉴는 갑각류에 대게, 킹크랩, 흥게가 있고, 활어회는 광어, 우럭, 밀치, 모듬회가 있다. 해산물에는 전복, 명게, 낙지가 있고 해산물 모듬도 가능하다. 식사류는 물회, 특물회, 회덮밥, 계장볶음밥, 흥게라면, 매운탕 등이 있고 세트 메뉴에는 대개 세트(회, 해산물, 물회, 랍스타, 대게), 흥게 세트(회, 랍스타, 흥게, 흥게라면) 등

으로 어지간한 메뉴는 다 있는 것 같다.

오늘의 음식은 물회이기에 특물회로 주문했다. 물회는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를 바닥에 깔고 활어회를 위에 놓은 다음 살얼음으로 된 붉은 육수를 부어서 먹는 것으로 회를 먼저 시원하게 먹고 육수 녹을 때쯤 소면이나 공깃밥을 넣어 말아 먹으면 된다.

물회와 특물회의 차이점은 물회에는 회만, 특물회에는 회, 전복, 명게가 들어간다.

붉은 육수의 비법은 알 수 없으나 살얼음일 때나 녹았을 때도 감칠맛이 살아 있다. 각종 해산물의 쫀득거리는 식감에 시원한 육수를 함께 먹으니, 더위에 지친 내 몸 구석구석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든다. 썹는 맛이 너무 일품이라 좋고, 소면과 밥이 들어가니 배까지 부르다.

먹고 싶은 메뉴는 많으나, 옥심내서 점심 한끼 먹다가는 큰일 날듯~ 기회가 되면 활어회 먹으러 한번 와야 할 것 같다. 괜히 그날이 기다려진다.

영업시간은 11:30~23:00이고 매주 월요일 휴무이니 꼭 방문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말봉 객원기자



역사극 전문 채널
역사는 드라마다!
씨엔티브이

푸른방송 일률형 33-1 / 디지털 51번

중국 드라마 전문 채널
완벽 자막으로 즐기는 중드
채널차이나

푸른방송 일률형 56-1 / 디지털 121번

액션 영화 전문 채널
세계의 모든 액션을 즐겨라!
채널액션

푸른방송 디지털 98번

달서구 'MBTI 연애의 달인 데이트'

오는 6월 21일까지 참가자 모집…미혼남녀 만남행사 7월 6일, 13일(2회) 운영

달서구(구청장 이태호)가 7월 6일(토), 13일(토) MBTI(성격유형검사)와 인재원 'MBTI 연애의 달인(in) 데이트'에 참가할 미혼남녀 20명(남 10, 여 10)을 6월 21일(금)까지 모집한다.

달서구는 최근을 희망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난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인 만남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이번 만남행사는 청년들의 문화적 흥미를 살피고 있는 MBTI를 인재원 데이트로 펼쳐지는 상대를 찾기 위해 20명의 미혼남녀를 가진다.

행사는 MBTI 검사를 사전 진행한 참가자들과 오리엔네이션을 시작으로 1:1로 네이선 대화, 연애토론, 면밀 대화그리에이션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두 번째 만남에는 커플 대화그리에이션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쌍방이 쓰인 이성에게 바



3삼5오(목재) 데이트 만남행사(2023. 5.13.)

지역으로 최종 두표를 하여 친구를 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희망하는 일부 협약 기관이나 주소 또는 직업이 달서구/인 25~39세 미혼남녀는 6월 21일까지 달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http://daeseo.familynet.or.kr>) 신청 후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달서구 청년문제과(☎ 667-3701~2)로 하면 된다.

한편,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 달

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친화팀을 신설해 청년들의 결혼관련 을 지원하기 위해 이색적이고 자연스런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긍정적 청년문화 조성과 확산과 행 복한 가정생활 실현을 위해 39개 단 간·공공 기관, 단체가 협력해 '살 만나보세. 달서 뉴(NEW) 새나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태호 달서구청장은 "녹색의 자연과 싱그러운 푸른 풍경이 환경과 새로운 의지를 복동아 주는 계절에, 청년들에게도 긍정과 따스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희망하여,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한 든 결혼관련을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VITA' 와이즈발레단 창작 무용

6월 15일(토) 오후 3시 대구예술당

와이즈발레단 창작 무용 VITA(이하) 공연이 6월 15일(토) 오후 3시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비단은 바느질로 '삶', '생명'을 외나라, 인간과 자연의 신비로운 관계를 낸다. 작품이다.

와이즈 발레단과 안무가 주재만이 허위한 두 번째 작품으로 2021년 한국을 대표하는 '비즈스 창작'을 수상한 바 있으며, 생활의 범위



'제506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교향악단 6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시립교향악단 '제 506회 정기연주회'가 6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체코의 작곡가 스메타나의 탄생 200주년과 서거 14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연주회를 선보인다.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백진현의 지휘로 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 간 신부 중 '세 개의 춤곡'과 스메타나의 교향곡, '나의 조국'에서 네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R석 3만 원, S석 1만 6,000원, H석 1만 원. 문의)053-250-1475

<도라에몽>, <파워레인저 킹덤포스>, <알로스와 친구들>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채널

**디지털
185번
가족과 함께**

ANIBOX

Animation

**디지털
182번
한일 동시**

<원피스>부터 <블루 아카이브>까지!
한일동시 애니메이션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채널!

SBS Sports
X
이강인





하빈초, 1학년 입학 ‘백일 기념’ 축하 잔치

1학년 16명 축하와 격려

대구하빈초등학교(교장 이일숙)는 지난 7일(금) 1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입학한 지 백일이 되는 날을 기념해 백일잔치를 열었다.

백일잔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00 일째 되는 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대견하게 여기며 잔치를 벌여 축하하는 날이다.

하빈초는 초등학생이 된 1학년 학

생들이 백 일 동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다. 하빈초는 한 학년이 한 학급인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6남매 어울고리를 조직해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1학년 백일 기념 잔치는 6학년 학생들이 1학년 동생들에게 축하 왕관을 씌어주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응

원하는 덕담 카드를 전해 주는 활동으로, 1학년과 6학년 남매들이 백설기를 나눠 먹으며 백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초등학생이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간을 가진다.

백일잔치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6학년 선배들이 준 덕담 카드를 받고 언니, 오빠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끈끈한 6남매 사랑의 고리를

맺어갈 것이다.

이일숙 교장은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백일을 맞이한 1학년 학생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앞으로 소규모 학교에 어울리는 맞춤형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하빈초등학교>



달성초, 학교 내 대안교실 ‘달꿈교실’

대구달성초등학교(교장 이종숙)는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2회(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 2교시) ‘달꿈교실’이라는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달성초는 정규 교과시간에 운영되는 부분운영제 대안교실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성초등학교>

CHU
 온리U 드라마
 드라마와 입 맞CHU다

해외(유럽)드라마 전문 채널

SISI

아씨 드리안

DIRILIS: ERTUGRUL

WORLD ON FIRE

디퓨터

나는 아가씨

1·3세대가 함께 하는 플로깅

용전초, 1교 1기부 봉사동아리

대구용전초등학교(교장 배영서) 1교 1기부 봉사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5일(수) 환경의 날을 맞아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학교 주변 상리공원을 산책하며 쓰레기도 줍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용전초 봉사 동아리는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자원봉사팀 청춘봉사단과 연계해 ‘세대통합 青·春 그린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수)에는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1:1로 서로의 짹꿍이 되어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주변 쓰레



기를 주우며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1·3 세대의 교류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1세대 어르신들

은 세대 교류 및 노인의 사회 참여를 통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3세대 학생들은 노인 공경과 나눔 및 섬김의 인성을 고양하는 시간이 됐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생각보다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놀랐다. 플로깅 활동 후에 공원이 깨끗해진 것 같아 뿌듯했다.

짝궁 할머니께서 공주라고 불러주시고 계속 예쁘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은 “어린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산책하고 쓰레기도 주우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배영서 교장은 “1·3 세대가 협심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다보면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료제공:용전초등학교>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 있나요?

엄마와의 기념여행

생애 가장 특별한 여행이 찾아옵니다

CHANNEL J

푸른방송 디지털 케이블 123, 케이블 57-1



달성초, 모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동

대구달성초등학교(교장 이종숙)는 지난 3월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달성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모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수가 많아진 달성초가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 전입온 학생과 기존의 학생들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자료제공 대구달성초등학교>



성당초, 장애이해교육 인형극 ‘달라도 괜찮아’

대구성당초등학교(교장 민병조)는 지난 5일(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이해를 위해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2024학년도 통합교육지원단 같이 [:가치] 프로젝트의 참여형 인형극 ‘달라도 괜찮아’를 실시했다.

<자료제공 대구성당초등학교>

연휴의 의미를 새롭게 쓰다! 미래를 향한 끝없는 노력

경화여고 ‘2024 도깨비 자기주도학습 캠프’

경화여자고등학교(교장 이성국)은 지난 6일(목)~7일(금)까지 교내 110명을 대상으로 ‘2024 도깨비(도전하라! 깨어나라! 비상하라!)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운영했다.

연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학교에 모여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연휴는 끝맛 같은 휴식의 시간이지만, 경화여고 학생들은 연휴를 학업의 연장선으로 활용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북돋아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기 중 부족했던 부분을 교사 코칭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새로운 학습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동기 부여가 되어주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힘을 볼 수 있다.

캠프에 참여한 2학년 김수민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휴 동안 캠프에 참가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스터디그



룹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며 공부하면서 우정도 쌓고 학업 역량도 키우는 1석 2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종명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성국 교장은 “연휴에도

쉬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경화여자고등학교>

달성중학교와 JCI가 함께 ‘도전! 골든벨’

달성중학교와 JCI가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이 지난 5일(수) 달성중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범죄 예방 대구서부 달성군지구연합회와 대구지구 청년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달성군청년 회의소가 주관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김덕현 대구지구 청년회의소 회장의 개회사와 달성중학교 서재용 교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퀴즈를 통해 학습 의욕을 높였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범죄 예방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뤘다.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퀴즈를 풀었고, 우승자에게는 JCI에서 준비한 다양한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김기덕 달성청년회의소 회장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상득 객원기자



북동중, 2024년 맞춤형 · 표준화 건강급식 시범 운영

북동중학교(교장 김명식)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건강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학생 스스로 급식 식단 작성에 참여하는 ‘학생 참여 식단제’를 운영한다. ‘학생 참여 식단제’는 학반 별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호도 조사를 실시해 식판 그림에 메뉴와 식재료 등을 작성한다. 이후, 영양사의 검증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자료제공:북동중학교>



대구달성도서관, 책놀이 전문가로 탈바꿈하는 시간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나도 책놀이 선생님’

대구달성도서관(관장 정현호)은 지난달 29일(수)~7월 17일(수)까지 8주간 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나도 책놀이 선생님’을 운영한다.

‘책놀이’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책놀이 과정에는 책을 흥미롭게 읽어주는 동화구연과 책을 활용한 놀이형 체험활동이 포함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모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그림책 읽기 방향과 방법, ▲책놀이 수업 구성 방법과 활동지 만들기, ▲다양한 책놀이 실습 등 알찬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책놀이 실습을 이어갈 수 있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후속 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을 듣다가 책 놀이 활동에 관심이 생겼는데 책놀



이 방법을 배우는 강좌가 있어 바로 적극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청했다. 열심히 해서 배운 내용을

〈자료제공:달성도서관〉



학생(교원)저자 출판도서 전시회 및 저자와의 만남

대구달성도서관(관장 정현호)은 지난 8일(토) 달성도서관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교원) 저자 출판도서 저자와의 만남’을 운영했다. ‘학생(교원) 저자 출판도서 저자와의 만남’은 학생(교원) 저자가 글을 쓰고 책을 만들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저자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대구시교육청에서 지원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6월 16일(일)까지 달성도서관 1층 로비에서 ‘2024년 학생(교원) 저자 출판도서 전시회’를 운영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달성도서관〉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중학생 진로 캠프 ‘내가갈지도’

대구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현)은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3일(월)~6월 8일(토)까지 2024학년도 달성 진로내비게이션 ‘내가갈지도 캠프’를 운영했다. 특히, 서울대 재학생과의 멘토링에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와 구체적인 진로 설계 기회를 가졌다.

〈자료제공:대구달성교육지원청〉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온(ON) 메이커스쿨’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관)은 지난 1일(토)~7월 6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희망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거점 학교 5곳(감천초, 대남초, 성신초, 송일초, 월배초)에서 ‘온(ON) 메이커 스쿨’을 운영한다.

‘온(ON) 메이커 스쿨’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포용성 있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학생 메이커 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마음·정서·환경·생활 속 문제 등을 주제로 한 피지컬 코딩*과 SW-AI 융합 메이커 교육으로 구성됐다.

*피지컬 코딩: 디지털 기술 및 장치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받고 여러 장치를 통해 현실로 결과를 출력해주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

특히, 주말에 운영해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공:대구남부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달성청소년과학캠프

대구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현)은 지난달 31일(금)~6월 1일(토)까지 1박2일 동안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관내 초등학생 64명과 중학생 36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달성청소년과학캠프’를 개최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2021년에 국립대구과학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부터 달성청소년과학캠프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자료제공:대구달성교육지원청〉



두류도서관, 기초·심화 과정 인문학 프로그램

‘길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대구두류도서관(관장 주해숙)은 6~9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주최하는 2024년 ‘길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질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초 과정인 ‘길위의 인문학_대구 역사 한가운데에서 나를 만나다’는 오는 6월 27일(목)~9월 12일(목) 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총 11회차로 진행되며, 대구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오래된 공간과 장소 그리고 재탄생한 공간과 장소를 매개로 대구의 근현대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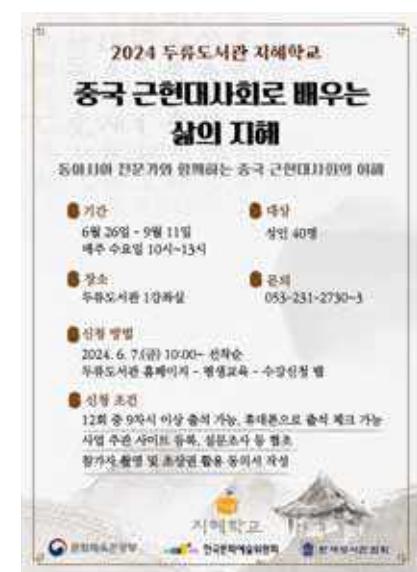
수업은 강연, 토론, 탐방, 실습, 체험 등 인문학을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일련의 과정들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며, 수강생들에게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알리고 인문학적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화 과정인 ‘지혜학교_중국 근현대사회로 배우는 삶의 지혜’는 6월 26일(수)~9월 1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10시, 총 12회차로 진행되며, 자타공인 동아시아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영화 교수가 진행한다.

중국의 역사, 정치, 경제산업, 사회문제, 생활, 문화 등을 통해 중국의 인문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과 편견을 버리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중국의 인문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7일(금)부터 선착순으로 진



행 중이다. 신청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관 누리집(library.daegu.go.kr/duryu)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실(☎

231-2730~3)로 문의하면 된다.

주해숙 대구두류도서관 관장은 “시민들이 인문학적 가치를 재미있게 경험해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인문학적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돋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두류도서관



세천초,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대구세천초등학교(교장 김진수)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피요령 습득, 역할 체험 등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했으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월배초, IB 월드스쿨 공개의 날

대구월배초등학교(교장 배남숙)는 지난달 29일(수) 학부모,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을 초청해 2, 3, 6학년 모든 학급에서 2024학년도 1학기 IB PYP 월드스쿨 공개를 가졌다. 지난해 8월 IB 월드스쿨이 된 월배초는 기존의 정형화된 수업에서 탈피해 개념 중심 탐구학습을 모든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금계초,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예방교육

대구금계초등학교(교장 김성자)는 제4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학급별 금연 선포식과 흡연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5월 3주~6월 3주까지 한 달을 흡연예방교육 집중의 달로 정하고 학생 및 춤형 흡연예방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최고다 이는 시

본방 월~금 9시 30분
재방 월~금 18시 30분

인어아가씨

본방 월~금 12시 30분
재방 월~금 21시

황금신부

본방 월~금 15시
재방 월~금 23시 30분

하이라이트 TV



JTBC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50분 방송

감독 안정완

푸른방송 8VSB 17-1, 디지털 14번 / 스카이라이프 4번 / KT Genie TV, SK Btv, LG U+ 15번

‘우리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구강보건의 날

달서구, 구강건강 홍보 및 체험행사

달서구는 지난 7일(금) 제79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홍보 및 체험행사를 가졌다. 구강보건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구강보건법에서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하고 있다.

달서구는 ‘우리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달서구보건소와 계명문화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및 학생 20여 명이 참여해 올바른 구강건강 교육과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동욱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과 직원 및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강세균관찰, 구취측정, 올바른 칫솔질배우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구강보건

의 중요성을 느끼고, 구강관리를 하기위하여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치면세균막(치태) 및 구강 세균 관찰, 구취 측정, 올바른

칫솔질배우기, 치아맨 비치백 만들기 등 체험형 부스를 통해 지역구민들과 관내 유치원 7개소에서 초청된 원아들이 구강 세균을 눈으로 관찰하며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구강건강 O,X 퀴즈 등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세경 객원기자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비와 함께 심해지는 비염, 점막면역력 강화를 통해 완화

코는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 재채기, 콧물 등의 면역반응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물질을 배설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요인에 의해 코점막이 과민하게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Allergic Rhinitis)이라고 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항원)이 코점막의 비만세포를 자극하고, 비만세포 표면의 IgE와 항원이 결합하여 분비하는 화학매개물질(히스타민)에 의해서 발생한다.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집먼지진드기, 애완동물 털, 꽃가루, 미세먼지, 음식, 약물 등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맑은 콧물(수양성 콧물), 코막힘, 재채기로, 이 외에도 눈과 코의 가려움, 결막염, 눈 밑 착색, 두통, 후각저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이나 죽농증이 병행되기도 한다.

비염환자들 중에서는 비가 오고 습한 날씨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다. 이는 실내외 온도, 습도 차이에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고, 습한 날씨에 집먼지진드기,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지면서 발생한다. 한의학적으로는 몸이 차고 체내 체액순환이 떨어지는 습담(濕痰) 형 환자들의 경우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 쉽다.

한방비염 치료는 코의 염증을 줄이고 비점막(코점막)의 면역력을 개선하여 비염을 관해(寛解) 시킨다.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폐기허한(肺氣虛寒), ▲비폐기허(脾肺氣虛), ▲비위습열(脾胃濕熱), ▲신기부족(腎氣不足)으로 나누어 치료 한약, 침, 뜸, 스프레이 같은 외용제를 사용한다.

비염은 생활관리도 중요하다. 먼지가 날 수 있는 천 제품 사용을 피하고 침구류는 자주 세탁을 해야한다. 담배연기, 음주를 피하고 원인물질이 되는 음식이나 약물이 있다면 삼가야 한다. 애완동물이 원인 인자라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지만, 키우고 있다면 환기를 자주시키고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미세 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닫고 외주 시에는 마스크를 끼는 것이 좋다.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계명대 동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3연속 '1등급'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류영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93.45점으로 3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종합점수 전체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기록하며 신생아중환자 치료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2022년 10월~2023년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자료제공: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구병원, 중대재해예방 교육

구병원(원장 구자일)은 지난 11일(화) 메디아트홀(대강당)에서 고용노동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자료제공: 구병원〉

6월 17일 ~ 23일



재미로 보는 술(서)



36년생 깊게 생각해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마라. 48년생 지난날의 실수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60년생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 72년생 망설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84년생 제대로만 하면 기회가 있다. 괜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96년생 어떤 일이든 원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37년생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차분해져야 한다. 49년생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61년생 뜻이 맞지 않으니 일이 자연될 수 있다. 73년생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점차 익숙해진다. 여유가 필요하다. 85년생 지금 해야 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 97년생 먼저 약속한 일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는 시점이다.



38년생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보상이 따른다. 50년생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이다. 62년생 자신의 노력만큼 어려움이 해결된다. 74년생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86년생 조금 번거롭지만 결과는 좋을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98년생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39년생 여유가 있을 때 아껴야 후회가 없다. 51년생 욕심을 버려야 편하게 지낼 수 있다. 63년생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싸움에 유리하다. 75년생 인일한 생각이 사고를 부르니 항상 주의하라. 87년생 편하게 생각한 일에서 문제가 날 수 있다.



40년생 고집을 버려야 도와주는 사람도 생긴다. 마음을 비울 것. 52년생 실수를 자주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 신중해질 것. 64년생 서두르면 망신을 당하게 되니 주의하라. 76년생 우연한 기회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약속을 들릴 것. 88년생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41년생 미래를 먼저 생각하라. 욕심을 버려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 53년생 눈앞에 보이는 일에 만 집중해야 한다. 급한 것을 보아야 한다. 65년생 오해를 받기 쉬울 때이니 주의해야 한다. 77년생 포기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다. 89년생 비밀을 만들면 더욱 어려워진다.



42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할 때이다. 54년생 욕심을 버리고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투자는 무리이다. 66년생 바쁜 일이 생겨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쉬지 말 것. 78년생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90년생 실수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3년생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 55년생 깊게 생각해야 한다.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신중 하라. 67년생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79년생 주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면 오히려 속임을 당할 수 있다. 91년생 힘든 과정에 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44년생 성공을 원한다면 냉정해져야 한다. 56년생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정을 따라야 한다. 68년생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친구를 잃지 마라. 80년생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포기하지 말 것. 92년생 주변 사람의 제안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45년생 포기한 일이 의외의 성공을 거둔다. 희망이 생기게 된다. 57년생 집 나가면 고생이나 그냥 집에서 쉬어라. 69년생 처음에는 어렵지만 차츰 좋아지게 된다. 81년생 아랫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어 일이 잘 풀린다. 93년생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된다.



46년생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 많은 사람이 따른다. 58년생 건망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꼭 메모를 할 것. 70년생 오해를 받게 될 수 있지만 걱정할 것 없다. 82년생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기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94년생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47년생 잘못된 것을 보고도 참아야 할 때다. 아직 시기가 아니다. 59년생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해야 피해가 없다. 71년생 너무 강하게 나가면 다칠 수 있다. 부드러움이 필요하다. 83년생 이성 문제로 디툼이 생길 수 있는 시기다.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95년생 자신이 나서서 해결되는 일보다 참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제공: 당신의 멘토, 운조아

주간 일기예보

출처: 네이버 날씨

6월 13일 목요일



최저 21°C
최고 34°C

6월 14일 금요일



최저 21°C
최고 34°C

6월 15일 토요일



최저 21°C
최고 31°C

6월 16일 일요일



최저 21°C
최고 31°C

6월 17일 월요일



최저 19°C
최고 31°C

6월 18일 화요일



최저 20°C
최고 31°C



시사상식

업사이클링(Up-cycling)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재고품을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다. 재고품에 새로운 가치를 입힌다는 점에서 쓰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과는 다르다. 재활용 의류를 통해 옷이나 가방을 만들거나 버려지는 폐현수막, 자투리 천, 폐복제 등에 디자인을 입혀 재탄생시키는 게 업사이클링에 해당한다. 업사이클링은 인테리어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공간 업사이클링이나 소품 업사이클링이 그런 경우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예컨대 세계적인 디자인 행사 런던디자인페스티벌은 2012년 업사이클링을 ‘올해의 트렌드’로 꼽았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명품 반열에 오른 경우도 있다. 1993년부터 트럭용 방수 천막이나 에어백, 자동차 안전벨트 등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들고 있는 스위스 브랜드 ‘프라이탁’, 업사이클링을 통해 가구 업계의 명품으로 떠오른 ‘리바 1920’, ‘박스터’ 등이 그런 경우다.

업사이클링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로는 비싼 가격이 꼽힌다. 기존의 것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한결 더 멋스러워지는 것이 업사이클링의 특징인데,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창조성과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가지 있게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업사이클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업사이클링을 C2C(Cradle to Cradle) 패러다임의 핵심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C2C는 어떤 제품이 사용된 후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또 다른 공장으로 가 새로운 제품과 용도로 다른 가치를 부여받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이용자만족도 푸른방송 전국 1위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합 상품



지금 바로! (053) 551-2000 www.gcs.co.kr